



‘태안 기름유출’ 현장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위치한 현장으로 출발하였고 도착 하니 벌써 시계는 11시를 가리켰다. 우린 식사를 허겁지겁 마치고, 미리 준비해 온 물품(장화, 방재복, 고무장갑, 마스크 등)을 황급히 착용한 후 버스에서 내렸다. 눈앞에 펼쳐진 서해안의 광경은 너무나 참혹하였다. 파란빛의 바다는 사라지고 검은 눈물로 우리를 맞이하였으며 기름으로 인한 악취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우린 빠른 복구작업을 위해 원유가 묻어있는 해안가 돌들을 닦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검게 변한 돌을 흰 옷과 수건으로 닦고 또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원유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백번쯤 닦으면 그래도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니 변화 없어 보이는 검은 돌도 점점 제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잠시 고개를 들어 둘러보니 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인 어린 아이부터 중고등학생, 직장인, 노인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빠른 복구를 위해 차갑게 붙어오는 거센바람과 갑작스럽게 내린 눈보라도 싸워가며 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마음 한 칸이 몽클해짐을 느꼈다. 복구해야할 작업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밑물이 작업현장까지 올라와 우리 일행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작업을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다. ❖

지난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는 유조선 기름유출로 인한 사상 최악의 해양기름오염사고가 발생했다. 각 매체를 통해 서해안의 심각성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지금 서해안은 ‘저승사자가 지나간 검은 제양’이라 불리고 있다. 검게 물들어버린 바다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늙은 어부들의 모습과 붙어버린 날개를 펴지 못해 죽어가는 겨울새들이며 황폐화 되어가는 자연환경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협회도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12월 29일 자원봉사에 동참했다. 우리 일행은 아침 8시경에

서해안의 검은 눈물을 닦아 주세요.

* 충남 태안군 일대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로 인한 긴급자원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 지원분야 : 인력지원, 물품지원, 급식지원
- 활동지역 : 충남 태안군 일대
- 봉사활동내용 : 기름 흡착 활동
- 필수장비 : 1회용 우의, 긴 장화, 고무장갑, 마스크, 목장갑 등
- 구호물품 : 유류 흡착포 또는 현옷, 방재복(우의 등), 고무장갑, 일반작업용 장갑, 장화, 생수, 컵라면, 마스크, 커피 및 따뜻한 음료, 간식, 초콜렛 등
 - 태안군 재난 상황실 : 041) 670-2659
- 흡착포 대용 현옷 수집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90번지 태안군청 지하1층 재난종합상황실
 - 전화 : 041-670-2648
 - 현옷의 종류 : 면이 많이 포함된 옷가지(면티, 면남방, 수건 등등)
-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 TEL 042)825-1646~7
FAX 042)825-1648
-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 041)675-1365